

코로나 극복하자...시민들의 새해 희망가

중소기업 노동자 김용현씨 무급휴직·결혼식 연기 시련 그만 올해 반드시 새로운 가정 꾸릴 것	60대 자영업자 김훈동씨 수개월 가게 닫으니 통장잔고 '0원' 단골 격려에 다시 문 열고 도약 준비	새내기 대학생 오윤석씨 코로나에 포기했던 계획들 실천 올해 진짜 대학생활 즐기고 싶어	직장인 꿈꾸는 취업준비생 기업채용 줄면서 힘겨운 한해 보내 부족한 부분 보완해 취업문 뚫겠다
---	--	--	--

세상이 멈춘 듯 해도...도전과 희망은 멈추지 않는다

신축년(辛丑年) 2021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1년 간 우리 일상을 흔들고 위협했던 코로나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 새해도 쉽지 않은 한 해가 되겠지만 희망의 싹을 심는 것조차 포기할 수는 없다.

생전 처음 겪었던 지난해 시련을 이겨낸 힘과 주변의 위로로 새로운 한 해를 버텨나가겠다는 희망을 불태우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30대 중소기업 노동자의 희망가- 기아차 공장에 부품을 공급하는 광주시 광산구의 한 제조업체 직원인 김용현(39)씨는 올해는 가정용 꾸리겠다는 희망을 키우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준비했던 결혼식을 미뤘다. 코로나 때문에 두달 간 무급 휴직을 하

면서 결혼 준비를 위해 모아놓았던 적금도 깎았다. 특히 평생 한 번 뿐인 결혼식을 미루면서 예비 신부에게 미안하기만 했다. 다행스럽게 예약장과 스튜디오 촬영 등은 추가 부담 없이 연기됐다.

김씨는 "더 이상 무급휴직을 하지 않아도 돼 올해는 반드시 새로운 가정을 꾸릴 것"이라고 말했다.

◇힘든 한 해 버텨낸 60대 자영업자의 대박 '꿈'-광주시 동구 불로동에서 음식점을 운영중인 김훈동(66)씨는 "너무 힘든 한 해"였다고 회상했다. 지난해 2월만 해도 하루에 한 테이블을 채우기도 힘들었다. 결국 김씨는 2-5월 가게 문을 닫았다.

당연히 통장 잔고도 '0원'이 됐다. 무작정 문을 닫고 있을 수만은 없어 가게 문을 열며 "누가 이기나 해보자"며 하루하루를 버티가면서 스스로 다짐

했다. 이 때 단골 손님들은 큰 힘이 됐다. 단골 손님들은 오랜 만에 문을 열자 "힘내라"며 격려했다.

김씨는 "올해도 코로나 여파는 계속되겠지만 가게를 잊지않고 찾아주는 단골 손님들을 위해서라도 힘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진짜 대학생활 '꿈꾸는' 새내기 대학생- 오윤석(20)씨는 지난해 대학에 입학했지만 수험생인지, 대학생인지 모를 한 해를 보냈다. '코로나19'로 6월에서야 대학 교정을 밟았다. 대학 같은 과 친구들과도 서먹해 혼자 점심을 먹는 날이 많았다. 2학기에도 코로나가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일주일도 이틀 정도만 학교를 다녀야 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엠티, 대학 축제 등은 맛보지도 못했다. 기껏 한 일이라면 PC방에서 게임하

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리포트를 제출한 게 고작이다. 친구들과 계획했던 해외 배낭여행도 포기했다.

오씨는 "고3 수능시험 뒤 해외 여행, 국내 일주, 워터파크 등 계획했던 일을 하나도 하지 못했다"면서 "올해는 포기했던 계획들을 실천하는 한 해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취업준비반 1년, 올해는 직장인을 꿈꾸는 취업생-취업준비생 김기영(가명·30)씨는 올해 어엿한 직장인이 되겠다는 희망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한눈 팔지 않고 취업준비에 매달렸지만 코로나로 기업들의 채용이 줄면서 원하던 곳에 취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김씨는 "취업하려면 회사가 매년 60명을 채용하다가 지난해 20명만 뽑았고 비슷한 계열의 회사들도 채용 규모를 줄여 경쟁이 심했다"

고 말했다. 최종면접 전형까지 치렀지만 끝내 합격 문자를 한곳도 받지 못했다.

김씨는 "3년째 취업준비를 하면서 이미 사회인이 된 친구들, 옆에서 말없이 격려해준 부모님 보기도 힘들었다"고 했다.

김씨는 낙담하지 않았다. 자신의 부족한 취업 경쟁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키워나가고 있다.

김씨는 "워낙 힘든 지난해를 보냈기 때문에 올해는 겁이 나지는 않는다"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당당히 지원증을 목에 거는 한 해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전남 대설 '교통대란'

교통사고·도로 통제 잇따라...새해 첫날까지 많은 눈 예고

대설 특보가 내려진 광주·전남지역에 지난 30일부터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통제되고 눈길 교통사고 등 불편이 잇따랐다.

기상청은 새해 첫날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지난 3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광주시 북구 운암동 기상청에 17cm의 눈이 내리는 등 광주·전남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8년 1월 10일 이후 1085일 만에 대설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다. 대설경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20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남부지방 상공에 자리한 눈구름이 남동쪽으로 좁고 기다란 띠 모양을 이루면서 특정 지역에서만 쏟아졌다가 그치기를 반복하며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새벽부터 내린 폭설이 도로에 얼어붙으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랐고 자차단체의 제설 작업은 더디게 진행된다. 주요 도로 교통 통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출·퇴근길 교통 대란도 빚어졌다. 서구 뒷북터널과 광주시교육청 주변 경사로는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눈길에 미끄러지는 차량들이 속출했다.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앞 사거리와 광주시립미술관 교차로는 경찰의 통제에도

출근길 꼬리물기가 끊이지 않았다. 도심 곳곳에서 진행 중인 지하철 공사장 주변 정체까지 맞물리면 서 30분이면 족한 출근길이 2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했다.

곳곳에서 크고 작은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30일 오전 10시 30분께 고흥군 봉해면 편도 1차로 산간도로에서 A(51)씨가 몰던 SUV차량이 5m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 A씨가 사망했다. 경찰은 내리막길 구간에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새벽 5시30분께 광주 광산구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호남대 터널 인근에서도 눈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았고 오전 8시께 나주 세지면 한 도로에서는 SUV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와 부딪혔다.

오전 10시 30분께 장성군 북이면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 고속도로에서는 25t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은 1일까지 전남 서부지역의 경우 30cm가 넘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하고 한랭질환과 농작물 냉해, 시설물 동파 등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와 전남지방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린 지난 30일 오전, 광주시 북구 두암지구 입구 사거리에서 한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경찰과 운전자가 차를 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유치원, 초·중·고 15일까지 전면 원격수업

광주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오는 1월 15일까지 전면 원격수업을 한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점을 감안, 자체 눈의 끝에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비대면 원격수업을 불가피하게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등학교의 긴급돌봄은 정상 운영된다.

특수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1대1 또는 1대2 대면 교육 병행이 가능하다.

초·중·고의 경우 원격수업이 원칙이지만 평가, 학년말 정리, 졸업식, 졸업식 등을 진행할 경우 당

일 밀집도 3분의 1 이내에서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특히 졸업식은 비대면 또는 학급 단위 등 최소 규모로 진행된다. 학부모 등 외부인은 참석할 수 없게 했다.

장학국 광주시교육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불가피하게 내년 1월 15일까지 원격수업을 연장한다"며 "졸업식도 최소한의 규모로 진행해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이진 장편소설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엔 그가 너무 크다."

-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던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 한진원 시인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합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남설현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남설현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집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

저자 이진